東亞報筆禍事件 記友團調査의顚末

고소의주인공인녀학생은 고소가무엇인지모른다고

學父兄과社會側은大憤慨

경북 영양군 석보공립보통학교(慶北英陽郡石保公立普通學校) 신훈도(申訓導)와 녀학생 서학이(徐學伊)사이에 추행이잇다는 사실이 동아일보에 보도된사실로말미암어 동아일보 영양지국은 명예훼손이란죄로 고소를 당하얏다는바 안동(安東)에 사무소를둔칠군련합긔우단(七郡聯合記友團)에서는 그사실의내용을 됴사하기위하야 동단상무집행위원 박석규(朴錫圭)씨를당디에 파송하얏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제그진상을 됴사한바에의지하면 동교훈도 신주택(申周澤)씨와 동교오학년녀학생서학이사이에 불미한 행동이잇다하야면내일반이다알게되얏슬뿐아니라 전교생도가 교장에게 질문까지한일이 잇섯든바 교장의답변이 사실을됴사하야정당한처치를 할터이니 기다리라한후 이학긔가거의다지나도록아모처치가업슴으로 생도측에서는 불평이심하야 동맹휴학까지 하고자계획하는중 학부형측에서 이소문을듯고 일변으로 학생의행동을방지하며 일변으로 교장을방문하고교섭한즉교장의말이불행으로 직원의불미한일이 이미 전파되얏슨즉 학생의 요구뿐아니라 사실의유무는 불문하고 톄면상도더히할수업는것을깨달엇스나 목하학교사정으로 급속히 처리하기는곤난하다하며 만일 학무형의 희망이 그교원을 쳐리하는것이 조타하면 도당국에서도 아는사실인바 삼학긔에는 단연히정리하겟다하얏다더라

校當局과 郡當局은 도모지모호할뿐

학부형들은학교사정을위하야삼학긔까지 기다리든바 삼학긔를 당하야 문뎨되든신훈도는 돌연히 고향에도라간후 일개월이되야도 아모종지가업다함으로 학부형측에서는 학교당국의 태도에분개하야 다시교장을 방문하고질문한즉교장도역시분노하야 규측상휴가는 교장을 경유하야 군수의허가를 엇는것인데 금번 신교원은 (

아모수속

도업시임의로 가고말은것이니 신학긔에는 단연코 처치할터이오 만일여의치 못하면 자긔가 책임을지고사면하겟다고 만흔학부형이 집합한자리에서 성명하얏는데 그후신학긔에 이르러신교원은 다시교수를하게되매 학부형들은다시 교장의행동이 긔괴할뿐아니라 학생과 학부형을 넘어나무시한다하야크게분개하야

교장까지

불신임(不信任)을하겟다고 대표자수인을군당국에 파견하야 리군수에게동교사건의 뎐말을 상세히말한후교원처치를요구한결과리군수의답변이 학년면장이니 무엇이니하며 대답이모호함으로 교섭위원들은 강경한태도로 학년면장은 별문뎨로하고 교원만을정리하야 달라고한즉 군수는곳됴사하야 처리하겟다고 하얏는때 그후에도 아모처치가 업슴으로 필경은 도당국에까지 진정서를 데출하얏다더라

『警察署에 가기는햇스나』

고소는무엇인지모른다는 문뎨의 신훈도는동아일보영양지국장조훈석(趙勳錫)씨를명예훼손이란죄명으로 고소를데긔한바 동지국장은 안동검사국에까지 가서취됴를밧다가 즉시방면 되얏고이제는녀학생인 서학이가 동아일보사를걸어고소를하얏다는데 당디경찰서에서는 동지국 긔자 됴세무(趙貴武)씨를구금하고취됴중인바일반

학부형측

과사회측에서 대분개하야 학교당국에 대한 비난이 비등한중인데 정세무씨의 구금 사건의 원고인녀학생서학이는말하되 자긔는고소가 무엇인지알지도못하고겸하야누구를 고소한지도 모르겟다하며 자긔와신훈도사이에 추행사건이 신문에낫드라고 다른사람들이 말하기에 자긔로는 사실이업슴으로

그신문을

가지고석보주재소에가서 말한즉 주재소수석순사가무엇인지자긔가써가지고 도장을 찍으라하기에 도장을찍어 엇슬뿐이오엇자된사건인지누가 피고소인인지도알수업다하며사건에대하야는 목도한사람이업시 엇지그런소문이낫는지 매우이상하다 고하더라(긔우단통신)

日首相暗殺陰謀의 內田良平等公判

의회를폭파하라다못하고 수상을암살코자하엿다고

일본데오십 의회(議會)의 보선안(普選案)을 방해할 목뎍으로 가등수상 (加藤首相)을 암살하랴던 순정보선파 (純正普選派)의 흑룡회(黑龍會)수령 내뎐량평(內田良平)(五二)이하 좌등경장(佐藤慶藏)(三七) 미견국일(尾見局一)(三〇) 뎐중길차랑(田中吉次郞)(三〇)등 네명에대한

살인예비

(殺人豫備)피고사건공판은 십칠일오전 열한시부터 동경디방 재판소우야재판장 (宇野裁判長) 룡천검사(瀧川檢事)의 심리아래에 개뎡되엿는데 법뎡부근은 경관이 엄중히 경계를하엿섯스나 이른아침부터 흑룡회원인 장사패가 몰리어 들어법뎡의광경는 심히 긴장하엿스며 뎡각이되자

좌등경장

으로부터심리(審理)가시작되엿는데좌등은십팔세부터각디방으로유리하여단이다가내뎐 량평의집에식객(食客)이 된경로까지말한후자긔는 보선안에 못까지 반대함으로보선안심리회의 시긔인 삼월륙일경에의회(議會)를폭파(爆破)하려던것이 폭탄을 엇지못하야중지하고 삼월이십구일 뎐중과협의한후에

가등수상

을암살하기로 결뎡하고 내뎐을위하야 목숨을 내여버리기로 결심한것이요 륙혈포는 그냥내뎐에게 빌엇스나 무엇에쓴다고는 말하지안엇다고진술하엿다더라(동경뎐보)

겨울을장마가튼 昨今天候

십팔일부터 개이고치워진다

철갓게 겨울을장마처럼 요지음비가자저서 근년에드믄 긔후를계속하는데이에대하야경성측후소원의말을드르면 이번비는 이삼일전에 중국상해(上海)에 잇든 뎌긔압이 제주도(濟州島)근처에 와서 조선해협(朝鮮海峽)에 가로 질려잇슴으로 조선중부이남은 비가가긴후오게된바 십팔일에는 몽고(蒙古)에잇는 고긔압이 일본해(日本海)로향하야 발뎐하는동시에 비는개이고 이로부터는치워지리라더라

不正稧에大鐵槌

경찰부에서서장을모흐고 엄중히처분하기를의론해

경제계(經濟界)의 압박이 심하여옴을 따라 유령회사 (幽靈會社) 와조합(組合)또는계(稧)가 는것이만히이러나서빈민의금전을 편취하는사실이 빈빈한데대정십삼년에 발표된『강계회취례규측』(講契取締規則)으로얼마간 그들의 간악한행동을억제하야왓스나 시일이감을따라교묘히규측에걸리지안토록하여가지고여전히빈민의푼전을글거사고을채우는자가여전함으로경긔도 경찰부에서는금후부터는이와가튼폐해를미면에방지하려고십하던중 안등경찰부장(安藤警察部長)은일전에 시내각경찰서장을모흐고 취례방침을 협의한결과 금후부터는조합과『계』의 출원(出願)을 절대로 허가치안는 동시에따라서 종래의『계』와 조합에대하야는 내용을 됴사하야만일 불법한일이발견되는 때에는용서업시 엄벌하기로 결뎡하얏다더라

平康에強盜

주인을구타하고 금품을강탈도주

평강군평강면상갑리삼백륙십번디에서 상화상하는김뎐문(金天文)(六九)의집에는 지난십사일오전두시경에 삼십세가량 되여보이는자 한사람이 흰수건으로머리를 동이고부억벽 일부를헐고 돌입하야가가방에서 자고잇든권긔가가주인김런문을구타한후 뎐고자든이불을 씨워노코현금칠십삼원삼십륙전과팔든광목사십여쳑의 가격십일원 팔십륙전등 합계팔십오원 이십이전어치를강탈도주하얏다는데이곱보를드른 소관평강서에서는 방금범인데포망을느리고엄중수색중이라더라(평강)

盜賊맛고僞告

일부분실을 전부이러버렷다고

시내황금뎡(黃金町)오뎡목백오십칠번디달광상회(達光商會)집금원(集金員)으로잇는 림병은(林炳銀)(三二)은 십오일 오후다섯시경에 독립문(獨立門)압파출소에와서 나는달광상회 집금원인데 지금돈이십칠원이십 전을 집금하여 가지고오다가 분실하엿스니 차저달라고 계출함으로 파출소 순사는이상히 생각하고 그자의몸을수색한결과『구쓰』밋헤서 팔원이십전이나옴으로 더욱수상히생각하고서대문서에 인치후취조한결과 이자는『환일』(丸一)이라는 협잡하는자에게 걸리여 이십원을 이러버린후 주인볼면목이업슴으로 그가티 거짓고발한것이판뇌명엿다더라

長連署巡査가 六十老嫗를侮辱

호구됴사하러가서 가족수를모른다고

지난십이일에 장련경찰서 근무순사김모 (長連警察署勤務巡査金某)는은률군일도면신암리(殷栗郡一道面薪巷里)에사는 리종헌(李宗憲)의모친리씨 당년륙십일세된로파를 발로차고 무수한욕설로 모욕을주엇스며 동리 최창목의처손씨(四三)도또한그모양으로욕을당하엿다는바이제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그날김순사는 호구됴사 (戶口調査)를하기위하야 권긔리종헌의집에 갓든바 마츰 호주리종헌과 다른가족들은 전부집에잇지아니하고 그의모친되는 로파리씨만잇는고로 그로파에게 이집식구가멧명이나되느냐고무르매나는 늙은사람이라 아모것도 모릅니다 그문간에문패를 보십시요한즉 김순사는별안간

성을내며

네가 문패나보는사람이냐하며그와가티모욕을한것이라하며 또한 최창목의집에가서는 그의처 손씨에게더하야 그며의아들이 일본가서학교에 다닌다하니 그학교일홈이무엇이냐고 무르매 나는촌에사는녀자인고로 학교일홈을 드럿지만 긔억할수업습니다 한즉 제아들다니는 학교일홈 도모르느냐하고그와가티

발로차며

무수한모욕을 준것이라는데 일반 동민들은김순사의 란폭한행동에대하야 분개함을마지안는다 더라(장련)

兩日만에 一男一女를解産

산모는무참히사망

황해도신천군 문화면 동각리 김관혁 (黃海道信川郡文化面東閣里金寬爀)의안해는 지난구일오전두시경에 옥동자하나를해산하고그이튼날몸이 편치못하더니 또딸하나를나흔 후로는 그만산후여증으로 무참히도 그날을참지못하고 세상을떠낫다는데 하로살이 가튼 그두어린목숨은 엇지나 될는지 그아버지는 정신일흔사람모양으로 그저울기 만한다더라(신천)

진주에열리는공진회장 (『우상』는데일회장、『상좌』는데이회장、『하』는데삼회장=일면긔사참조)

釜山에警察會議

일본만주조선의각대표가 모혀서로국인취톄를의론

조선일본만주세곳의련락고등경찰사무협의회 (連絡高等警察事務協議會) 를지난十七일오전열시부터 경상남도경찰부(慶尙南道警察部) 안에열고고등경찰에대한 방침을서로 협의한다는데회의의 내용은 비밀에부침으로자세한 내용은 알수업스나탐문한바에의하면일로(日露)국교가회복된이후로 로국인의 왕래가빈번한까닭에 그취례방침을 협의하라는것이라더라

牛車가傷兒

김뎨읍에서

전북김뎨읍내경찰관파출소 (全北金堤邑內警察官派出所) 압헤서는지난십오일동군백산면석교리(白山面石橋里) 천긔선(千基先)의소구루마가지나가다가 마춤어물상(魚物商) 송미(松尾)의장녀『마쓰오』(三三)를 치어읍내본향의원(邑內本鄕醫院)에서 치료를밧는 중이라는데 치료비는권긔구루마주인이 담당하기로 하엿다더라(김뎨)

開城에 藥令市

십륙일아츰부터 남성시장에열려

개성(開城) 약령시(藥令市)는 지난십륙일 오전열시부터 남성시장 (南城市場)에 개최되엿는데 첫날임에불구하고 수만의군중이모혀들어 대성황을 이루엇다더라

運動界

仁川蹴球大會

仁川蹴球聯盟主催

仁川蹴球聯盟會主催로來十一月二十三日午前八時부터市內山根町公設運動場에서全仁川蹴球大會를開催한다는데參加規定及大會委員은아래와갓다더라

◇參加規定◇

一、申請場所 山手町朝鮮少年軍會館內蹴球聯盟會臨時事務所

一、申請期限 十一月十九日外지

一、選手資格 仁川府內에三個月以上居住한者

一、參加會費 每團二圓式

◇大會委員◇(無順) 劉斗熙 曹拔常 郭尙勳 李圭喆 蔡廷甫 盧相得 宋根燾 李壽峯

◇審判◇ 郭尙勳(仁川)

◇文幕公普運動 原州郡文幕公普校에서는去三日同校創立三週年紀念兼秋季大運動會를同校運動場에서開催하얏는데運動種目百十五種을秩序잇게欽佑히進行하야觀覽者에게快感을만히주엇고一般人士의贊助도多하얏다고(原州)

◇仁普紀念運動 密陽郡淸道面仁山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十四日本校創立紀念을祝賀하기爲하야第一回大運動會를開催하얏는데創造以來初有의大盛況이엇다고(密陽)

玉帶市民의運動會

慶北榮州郡丹山面玉帶市에서는同市民의主催로十一月十四日부터三日間白日場脚戲等의運動이잇섯는데各地에서雲集하는觀覽客은無慮數千으로未曾有의大盛況을呈하얏다고(榮州)

平壤市民運動

平壤市民有志一同과關西體育會의主催인平壤市民秋季大運動會는豫定대로去十四日箕上里大運動場에서열니게되얏는데提燈競走、二週三週四週障碍物、珠算、暗算、盲目、小學生幼稚園、來賓、任員等의競走와各團體의리-레競走로一等은天一商店이엇다고(平壤)

◇日新女生見學 慶南釜山鎭日新女學校學生二十餘名은去十日敎員沈斗燮氏引率下에來慶하야各處에散在한新羅古蹟을一一히見學하고十二日午前十二時佛國寺驛發列車로歸校하얏다고(慶州)

晋州에開催하는 南鮮蹴球大會

晋州物產共進會를期하야晋州靑年會主催로南朝鮮蹴球大會를二十三四日兩日間大大的으로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此審判으로京城體育會徐丙羲君을招聘하야不日來晋한다하며數萬群衆의來晋하는共進會에一大壯觀이되리라고(晋州)

利原全郡蹴球

咸南利原郡東面淸洞靑年會에서는來二十一日부터兩日間當地淸洞코-트에서時代、東亞、朝報三支局後援으로靑年蹴球大會를開催한다고(利原)

平北庭球大會

第三回平北庭球大會는定州體育後援會主催와東亞、時代、本報定州支局後援下에서去十四十五兩日間當地公普校코-트에서開催되엿는데參加團體는定州修養會、同靑年團、五山高普校、宣川信聖學校、鐵山、定州普校團合六團體로月桂冠은宣川軍에歸하얏다고(定州)

◇南亭公普運動 盈德郡南亭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六日該校運動場에서秋季運動會를開催한바男女學生의活潑한競技는一般觀衆의喝采를博하얏다고(盈德)

◇落成式兼運動 今年四月에開校된淸州郡江外面江外公普에서는一萬一千四百圓의互金으로百九十坪의新校舍가竣工됨을紀念키爲하야去十四日에落成式及運動會를盛大히擧行하얏다고(鳥致院)

◇軍威公普運動 慶北軍威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三日秋季大運動會를開하엿는데人山人海를이루엇다고(軍威)

普校昌信二回戰

馬山公立普通學校野球團과當地昌信學校野球團사이에第二回聯合戰을十四日公普運動場에서열엇는데結局普校軍이優勢로再次七對二란大差의勝利를得하얏다고(馬山)

◇華南公普運動 華川郡華南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七八兩日間各學校學生의學藝會와秋季大運動會를同校運動場에서開催하엿는데出品點數는三百餘點에達하엿고八日에는賞品授與式을擧行하얏다고(金化)

人妻를藏置한 莞島의不法巡査

자긔집뒤방에데려다두고 사흘동안이나지내엿다고

警察本署도出動調査

전남완도군금일면 생일도(全南莞島郡金日面生日島)에사는 리홍민(李興珉)은 지난 십월중에 목포부온금동(木浦府溫錦洞)에사는 리옥순(李玉順)(一八)이란 녀자와가티 살림을하든중 지난 긔주소에서 살림을하든중 목포 사일에돌연 목포산다는 조병원(趙秉元)이란 사람이

차저와서

자긔가리옥순의본남편인즉 옥순을곳 돌리어보내라함으로 이광경을당한 리홍민은 옥순과가티 살기로계약 이되엿슴에 상당한 비용까지 되렷든터 임으로『그대가본부인지도 확실히몰으는터인즉 요구를 들을수업다』하고거절하엿던바 조병원은즉시이를 경관주재소에 고소한결과 주재소에서는 리홍민과리옥순의 두명을 불려다가 옥순에게 본부를따라가라하고 리홍민에게도 옥순을 내여노흐라 하엿스나 리홍민은이에 응치안엇슬뿐아니라 옥순도 그말을좃지안엇섯는데 이주재소순사류영업(劉永業)은

자긔독단

으로옥순을비밀히 보호실(保護室)에 너허두[illegible] 주재소에서는 류치시킨일이 업다 대답함으로 이에깜작놀난홍민은주재소소재디인 화목리(花木里)일대를수색하야드디어순사류영업의 집뒤人방에 들어잇는 옥순을발견하고 흥분한나마 지류영업과

일장격투

를한후완도읍내로 달려가서 경찰서에 고소를 데긔하엿스며 법원 검사국에 순사주재소를상대로 고소를 데긔하엿스며 대하야 이보도에 접한 완도 경찰서에서는경비선(警備船)으로외동주재소에 출장하야『너희들아니라도경찰 사무를보아 갈터이니 모다사직하라』고 일장야단을이루엇섯다 는데 순사류영업과 본부라는조 가의사이에는 무슨밀약이 잇는 듯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더라(목포)

愛妻의訃音에 暗涙滂沱한江連

재판소에서도매우동정하야 엿흘간말미를주어내보냇다

일본의유명한해적(海賊)강련력일랑(江連力一郞)에대한공소공판은 집륙일동경공소원(東京控訴院)에서열리엇는데 그중강련력일랑의 사랑하는 안해『오우매』가십오일밤에병으로죽엇다는통지가 재판소에왓슴으로이것을 즉시강련력일랑에게 알리매 제아모리 대담한강련이도 눈물을 흘리면서죽은얼굴이 라도 한번보겟스니 한번보게하야달라고 재판장에게 간절히청하얏는바 재판장도 이에동정하야 강련을십일간 책임지어출옥을허락하야 중야(中野)의집에 몰더보냇는데강련이가 집에 갓슬때에는 발서 사랑하든 안해가 화장련에서연긔로 화하는때이라 그화장에 버티든 무정한 강련의 울음소래는 참아 보지못할디경이엇다 하며 그녀자는 남편이감옥에 드러간후 중야의집에머물면서 고민하다가 고치지못할 중병을어더 그와가티 에처로운 죽엄을하게되얏더라(동경)

窃盜敎唆犯

징역일년을언도

김천황금뎡(金泉黃金町)에사는 량시호(梁時浩)(三五)는김천금뎡재봉긔계회사분뎜 (錦町裁縫機械會社分店)에 고인으로잇는김점시(金點時)(一五)라는어린아이를식혀 그회사에잇는 시가일백삼십오원가치되는 손틀 재봉긔일대를훔처오게하야 동 황금뎡에잇는 암뎐질옥(岩田質屋)에 이십오원에 잡히엇든것이 발각되야 경찰서심문을마친후 일건서류와함께 검사국으로 넘어간후지난십륙일오후에공판이개정된바 대규요(大規要)검사가 징역일년의구형이잇서 배석중촌 판사(中村判事)의언도로징역일년에 처형되얏다는데 피고는 이것에불복하고공소하리라더라(김천)

孕婦投江自殺

생활난이라고도하나 리면에리유가잇는듯

개천군 외동면룡소리이번디(价川郡外東面龍沼里二番地) 강봉숙의이웃에잇는김윤택(金允澤)(三一)의안해 정성녀(鄭姓女)(二二)는 집이넘우간난함을비관하야그곳 정상천(井祥川)에 몸을 던져자살하엿다는데 이제그가강에 몸을 장사하기까지의 경로를들은즉 정씨는 그부근에서 미인의평판이잇는터인데 그외남편은 항상일정한직업이업서배도라고로 돌도하나 수입이만코안흔 터에 술술김으로 자긔의 몸도 건우지못함으로그의안해뎡씨는자긔의소생인 아들형데를 다리고이집저집으로 도라다니면서 품을팔아 겨우그날그날을 연명하여 오든바 지난음력구월 십오일에 남편인 김윤택이가 집에 돌아와서본즉 전에업든 수목(水木)이 한필잇슴으로 이상히 생각하야 정씨에게 그출처를힐문한즉 엇더하다고하야서로 말다툼을하다가 그날밤으로 집을나가물에 몸을던저무참히도 불귀의나그네가되엿다는데그는아이를배인지 칠팔색이 되엿다하며일반은 모다 생활난으로그와가티되엿다하나 작년부터 남편에게 여러번이나 리혼을요구하엿다는것을들은즉 아마 그리면오는무슨사실도잇는듯하다더라(봉창)

自轉車까닭에 少年慘死

우차와충돌되야

평양부죽뎐리(平壤府竹典里)십칠번디에 거주하는장진명(張鎭明)(一五)은 지난륙일 오전열두시경에 시내박구리(璿九里)부근에서 자뎐차(自轉車)를타고 급속히다라나다가 그때에 권면으로 통행중이든 대동군 림원면 (大同郡林原面)서모(徐某)의 우차(牛車)와 충돌되야 인사불성에 싸지엇슴으로 곳서문통 (西門通)부근 덕해의원(德海醫院)에 수용하야 응급치료를 하얏스나 원래중상이엇승으로 오후한시경에 사망하얏다더라(평양)

地主의所爲냐 舍音의奸計냐

소작인들의불평

강화군 부내면 신문리(江華郡府內面新門里) 부호최국현(崔國鉉)에 토디가김포군월곳면보곳성동(金浦郡月串面甫串城東)두동리에 잇는데소작료를심하게바듬뿐아니라 소작인에게종자도 업는소위 무종답(無種畓)으로 하라하야각소작인은 항여나 소작권이나 떠러질가염려하야 별반대항도업시 금년농사를 지여왓스나 이번소작료를 바들때에 전에업든 새법을내여 소위곡초가(穀草價)라는것으로 한말지기에 한말식을 무리하게 가져감으로 이를분개한 삼사십명의소작인은 이여울한 말을최디주에 사음(舍音)성락현(成樂賢)씨를보고한즉 이는최디주가 이와가티 식힘뿐아니라 사실이 억울하면 소작권을 내여노흐라 함으로 일반소작인은 하도기가 막힘으로 이것이 최디주(崔地主)에 무리인지성사음(成舍音)에 간교인지 일반이 심히주목할 뿐아니라 이사실을 김포군농사장려회(金浦郡農事獎勵會)에진정을하리라더라(김포)

牛賊常習犯

네번재또잡혓다

경북영양군영양면감천동륙십사번디 오현진(慶北英陽郡英陽面甘川洞六四番地吳鉉晋)는 지난십일일오전십일시경에소한마리를 압뜰에 노하두엇다가 일허버리고사방으로수색하든바지난십삼일에 립암(立岩)주재소에서 범인을 데포하엿다는데 동군일월면주곡동 최모(同郡日月面注谷洞崔某)(二六)가몰고 립암시장(立岩市場)에가서 리중근(李仲根)의소개로 신구동조정식에게 대금륙원에 방매하야가지고 양항동 자긔친족의집에가서 류숙하다가 데포되야 당디경찰서로 인치취됴중 발바닥양말속 에서 현금 오십원과 족기속에서현금 십원이 발각되야 범죄사실이판명되얏승으로 현금은 소삿든사람에게 도로주고 소는소유자에게로 인도하고범인은 검사국으로송치한다는데 그자는 소도적 전과 삼범으로 출옥된지불과월이라더라(영양)

自働車와衝突로 農牛가折脚

서로피하다가충돌되야

영덕읍(盈德邑)아래장터에서는 지난십삼일 오후네시경에 읍으로오는 한문양행(韓文洋行)자동차운전수(運轉手)박모(朴)가 운권하는중에 영덕면 금호동리병규(錦湖洞李丙圭)가소를싯고 나려가다가 자동차와충돌되야 소는다리가 불어젓는데원인은 서로피하다가 충돌되엿다더라(영덕)

휘파람

▲권매국신안주출장소원 (專賣局新安州出張所員) 두사람은 연초자가용됴사를하기위하야일전에렵산군운산면가도동 (鐵山郡雲山面假島洞)에나와서 ▲자긔의책임을 다하노라고 남자도업고 녀자혼자잇는집에 들어가서 의롱을뒤지는등 지나가는 사람을 붓들고 담배먹지안느냐고 입에다가 코를 대이고 마러보는등 별별짓을다하엿다고 ▲그사람들 직책을다하기위하야 열심인 뎜으로보면 탄복을 아니할수업다 파면권매국장을 시킬만한 사람들이라 하겟다▲그러나 당한사람들은 가슴에어떠한 생각이 남어잇는것을 긔억하여두어라

돈二百圓에 慾心이나서

제목을찔르고 경찰서에무고

원적을 전북고창군 해리면평디리(高敞郡海里面平地里)에두고 현재동군 읍내리에잇는 리흥욱(李弘郁)의 하약방(藥房)에서 심부름하는 김응천 (金應千)(二三)이라는자는 지나간 십삼일에 팔인목을안고 당디경찰서에가서 리흥욱의버뎃셥을 가지고 정읍(井邑)장에가서 팔어 돈이백이십사원오십오전을가지고오다가 신흥리와고창사이에잇는 송재(松峙)라고하는 곳에서 강도를맛나 돈을빼앗기고 강도의칼에 목을이와가티 찔렷다고 함으로 경찰서에서는 곳비상선을는리고 사방으로 수색을하엿스나 강도를마진 형적이업슬뿐아니라 그자의행동이 매우수상함으로 엄중히취됴를한즉 정읍에서 사긔도박단을맛나 도박을 해서 돈을다일허바리고 면목이 업슴으로권긔와가티무고를했다고자백을하엿는데 사과하라고 내인죄가 탄로된듯하야 취됴중이라더라(고창)

假王 【九】

白眼子譯

한참동안 우리가 서로아모런말이업시잇다가 사머좌가 눈사이를찌프리며 나를 바라보고는입에물엇든 담배통을손에들고 엄숙한태도로

『사람이 나ㅅ살이나먹으나까 운명이라는것을 미들수밧게 업는데 라도빈씨가 이곳에오시게 된것도 운명이요 또우리뎐하와 똑가티생기신것도 운명이니 뎐하대신에 대관식을 거행하서야 하겟소 모도가운명인줄로만 생각이드러감니다』

고하매 나는깜작놀라며 그런소리를 어듸서감히입밧게 내일수가잇느냐고하얏더니 도련형이는 나를정신업시 처어다보앗다 나는말을이어

『천만뜻밧게소리지 뎐하인데하고갓다가 들키면 그런변은또어되드러보지도 못하던일이겟소하고사머좌의 의견을막어버리려하엿더니 머좌는 조금도긔란업시 내가로국왕노롯을 잠간하기에 아조 적당한사람이라고옥여대여엿스나 나는 실로곤난하엿다 왕노롯을 잠간하여보는것도 한작란거리는되지마는 만일그리하다가 발각이되면 그선후책을 엇지할는지 도모지생각이나지아니하엿다 로국 대관식에구경하든사람다려 왕이 잠간여달라하니 이것은 어린아이희롱이라고도할수가업고또는그왕이 나를협족이라고 대컨물를승히 하엿는데 내가그런신세를지고 모른다고 내몸만앗기리엇다 사머좌가 내엽흐로와서나의팔을 쌕쥐며『이런일에주저하시면 그런봉긔를 가진청년이장래사업이라고는 모다 허사가 될터이니 장부스러운의긔를내여 용단을하여보시오』하고나를쐐이며 간청을하엿다 나는하는수업시 불귀신에게 끌리듯키머좌의간청에 못익이어 끌려가기로결심하고

『그러면 내가 목숨을희생하고라도 당신네나라에 큰변괴가 나지안케하여봅시다』하면서 사지를쭉펴고누어잇는 로국왕을 바라보앗다 그러케 가겟다고 대답을하여노코는 아니나오는 생각이업시 머리속이 갑작이복잡하여젓다 집에서 형수에게 게으름쟁이라는 별명까지 드러왓는데 내가 잡잡이 집을나아와서 외국의 왕노롯을 하엿다는말을 드르면 형수는 나다려무어라할고 또내가 멧칠이라도왕노롯을하면 모르거니와 가는마다 발각이되야 붓잡혀죽으면 세상사람의 우숨거리나되고 또나의 청춘이 아즉도 구만리가튼데 장래의모든사업이 모다허사이오 나희 겨우스물아홉살의생으로 감긔한번 알치안튼몸이 고만이세상을하직한다는것도 억울한 일이고 아니할수업는 것이로군하야 한편으로 호긔심이생기어 나의생명을 써여노코 한번놀며보는것도 무방한데 서투루하구다가는 취도모른게잡이어 죽으면 그러한 어림업는일이 업고나 하야 별별가지로생각이 충생첩출하얏다 그러나 성즉군왕이오 패하면 역적이된다고 내가련연한데도로 수어만하고 버러면 매일왕을 모시고잇던 신하여러도 도내가 면사람인줄 모를리라 이번에 감쪽가티 우리계획이 드러마지면 불상히 술에취하여 세상을모르는 로국왕에게 죠흔 일을하여줄수가잇고또는그공작이아조 불량한놈이라니 그놈의바리는것이 나의일평생의 사업의하나는 될것이오 또일의성패는모르나 운이불길하야 내가 실패하드라도 아지못하는 사람는 나를비소하기도쉬우나 나의 량심에는 추호도 붓그러울일이 아니다하는 생각으로 필경은 [illegible]은결심으로 왕을대신하야 대관식을 거행키로 결뎡하엿다